

번식 위한 철저한 준비 및 관리 요망되는 9월

- 발정기 안전사고 유의, 영양 및 질병 관리에 만전 기해야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9월 사슴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다.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9월은 올해 태어난 새끼사슴들이 젖을 떼고 어미사슴에게는 종록을 합사시켜 임신케 하는 시기다. 또한 번식투쟁에 의한 숫사슴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장을 재정비하고, 겨울동안에 제공될 조사료를 저장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슴은 도태하며, 지난 봄과 여름에 생산된 녹용을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시기가 9월인 것이다. 사슴 사육자는 지금부터 내년 2~3월까지 숫사슴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방지도도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이다.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9월부터 다음해 2~3월까지의 기간은 숫사슴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 사육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시기다. 이 시기의 숫사슴

은 어린 나이를 제외한 모든 숫사슴은 맹수로 돌변한다. 이 시기에 사슴사육자는 숫사슴의 우리에 드나드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이 2m이상의 몽둥

이를 들고 들어가야 하며 이때에도 정말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혼자서 숫사슴 우리에 들어가는 것, 특히 엘크 숫사슴이 있는 우리에 들어갈 경우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숫사슴에 의해 불행히도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누구나 당황되지만 우선 사슴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뒷걸음치며 큰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몽둥이를 휘두르고 철망이나 파이프 위로 피신해야 한다. 숫사슴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는 땅에 엎드리거나 넘어져 피하지 못하면 숫사슴은 앞무릎을 구부린 채 녹각으로 계속 짓이겨 사람은 전신골절,



▲ 늦어도 10월 중에는 이유를 실시, 암사슴의 임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과열로 인해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사나운 숫사슴이 있는 우리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반마취를 실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입해야 한다. 그리고 사육자는 항상 피신할 곳을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높이 1.4m, 길이 3m이상의 공격방지틀도 운동장에 설치해두면 피신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숫사슴 우리일 경우 투쟁에 의한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평소 순하다고 생각되던 숫사슴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절대로 숫사슴을 믿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또한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숫사슴이 우리 밖이나 통로에 나와서는 안된다. 실제로 엘크 숫사슴이 밤사이에 통로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른 채 사육자가 이른 새벽에 먹이를 주러 들어갔다가 통로에서 공격을 받은 사례를 필자는 접해본 바 있다.

2. 새끼 사슴의 관리

올해 태어난 새끼사슴은 9월 초순에 젖 떼기를 해야만 어미사슴의 신체에 호르몬변화가 일어나 임신이 촉진된다. 젖떼기를 하지 않으면 프로락틴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분비되어 발정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원활치 못하게 되어 발정 발현이 지연되는 게 보통이다.

꽃사슴은 6월경, 레드디어는 4월말경, 엘크는 5월말경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이시기보다 2개월 이상 늦게 태어난 자식은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열등상태가 되므로 우량한

사슴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부득이하다 해도 늦게 분만된 새끼사슴은- 생후 60일까지는 포유를 해주어야 하고 애처롭지만 10월중에는 젖을 떼어야만 한다.

젖을 떼는 새끼사슴이 안정이 되는대로 구충제를 투여하고 힘과 덩치가 비슷한 것끼리 무리사육을 하며 생후 6개월경까지는 어린 새끼용 사료를 주어야 한다.

젖떼기는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젖떼는 새끼 사슴의 우리는 건조하고 안락하며 먹이나 먹는 물에 전해질을 섞어주면 이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젖을 먹고 싶은 갈망으로 인해 비닐끈, 철사, 밧줄, 비닐 등을 먹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끼사슴은 만2세가 될 때까지 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하고 칩잎, 알팔파, 콩잎, 아카시아 등을 더 많이 공급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허약, 설사, 피부병이 있는 새끼사슴은 허약해져 겨울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서 치료해 줌이 좋다. 어린사슴에게는 비타민, 미량광물질, 전해질 그리고 무기물(소금, 칼슘, 인)의 공급에 유의해서 신체 발달이 균형되게 해주어야 한다.

3. 어미 암사슴의 관리 요점

적기에 원활한 임신을 위해 9월과 10월에는 배합사료와 건초 그리고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이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어떤 이유든지 지나치게 마른 사슴은 발정이 늦게 오거나 발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

다면 교배시작 전에 구충을 해주고 금년에 공태였거나 사산 또는 유산된 사슴은 번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수의사에게 직장검사를 의뢰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며 난산 등으로 인해 번식장애가 있거나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 번식장애가 예상되는 암사슴은 과감히 도태함이 권장된다. 사슴은 경제동물이기에 경제성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번식을 위한 합사는 꽃사슴은 12월말까지 레드디어는 엘크와 마찬가지로 11월중순까지가 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상 합사하면 가치가 없는 늦은 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족은 녹용 생산이 저하될 수 있다.

훌륭한 숫사슴 새끼를 원하는 사슴사육 농가라면 어미 암사슴의 관리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슴의 털을 뽑아먹거나 해마다 역산하는 어미, 다른 새끼사슴에 난폭한 어미사슴은 역시 도태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암사슴의 먹이통의 길이는 길수록 좋다. 먹이통의 길이가 적어 동시에 사료를 먹지 못하면 힘의 균형이 깨져 허약한 개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기억해 두자.

4. 9월부터의 숫사슴관리

어느 사슴품종이든 간에 9월부터 숫사슴은 번식투쟁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먹이 섭취를 제쳐두고 난폭해져 때로는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진다. 때문에 그



▲ 종족으로 선발된 사슴은 철저한 사양관리로 이듬해 녹용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로 인한 스트레스의 가중에 의해 발굽질병, 골절, 허약, 장독혈증, 영양실조 등이 발생된다.

종족으로 선발된 숫사슴은 첫째 건강하고, 둘째 녹용생산량이 우수하며 유전성도 높아야 하며, 셋째 녹용의 모양, 질이 우수하며, 넷째 체형이 준수하고 온순하며, 다섯째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지 않은 숫컷이어야 할 것이다. 잡종인 숫사슴은 바람직하지 못한 열성인자의 발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번식용으로는 적합치 못한 숫사슴이 된다.

① 번식용 숫사슴의 관리 요점들

암사슴과 합사된 숫사슴은 다른 숫사슴으로부터 암사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더욱 지르고 먹이 섭취를 매우 소홀히 하며, 밤낮없이 움직여

무리한 교배로 인해 쇠약해지지만 의견상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웬만큼 무리가 있어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다 정말 못 견디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귀가 늘어지거나, 발을 절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게 된다.

이때에는 즉시 합사를 중단하고 안락한 곳으로 옮겨준 후 아미노산제제, 비타민제제를 기본으로 주사하거나 먹여준 후 나머지는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혹시나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요행히 좋아지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일쑤이다. 때문에 많은 사슴사육자가 말하기를 종족은 유리그릇처럼 잘 깨진다고 한다. 이는 많은 양육인들이 숫사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데서 오는 결과의 일부일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종족이라 해도 교배스트

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듬해 생산되는 녹용량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7~8두와 자연교배된 사슴이 20kg의 녹용을 생산했다 가정하면 이 사슴을 다음해 15두와 교배를 시키면 대개의 경우 18kg의 녹용이 생산될 수 있으며 전혀 교배를 시키지 아니하면 21kg의 녹용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5~10세의 나이를 가진 사슴에게 허용되는 암사슴의 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엘크의 경우 나이×1.5두, 레드디어는 나이×1.8두, 꽃사슴은 나이×2.0두라고 생각하면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다. 교배중인 사슴에게 부득이 마취를 할 때에는 절각할 때에 사용한 마취제 용량의 절반 이하를 사용하고 건강이 불량한 종족은 이보다는 더 줄여야 마취사고를 막을 수 있다. 여하튼 교배중인 종족은 철저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로 마취 신주단지 대하듯 해야 한다고 나 할까!

② 일반 숫사슴의 관리 요점

번식철에 본능적으로 싸움꾼이 되는 숫사슴은 관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마리의 숫사슴을 하나의 우리에 사육하라고 하지만 꽃사슴 사육능가나 다수의 숫사슴을 사육하는 사슴사육능가에서는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사육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이, 성품, 체격 등을 감안하여 사육장의 넓이에 따라 여러 마리를 합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동장에 2~3개의 공격방지틀을 설치해 준다면 위험은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공격방지틀은 높이 1.5m, 길이 3m이상의 파이프를 설치해 주는 것이다. 하나의 우리에 사육되던 사슴이 평소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한 마리가 다른 숫사슴을 공격하는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에는 하는 수 없이 난동을 부리는 녀석을 독방에 격리하는 수밖에 없다.

가끔은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던 무리가 갑자기 싸움이 심해지면 대개의 경우 어느 한 마리가 건강이 이상이 생겨 서열다툼이 생기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사슴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싸움에 의해 뒷다리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여러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곤란까지 발생하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와 도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합사중 부제병이 발생한 사슴은 즉시 독방으로 이동시켜 치료해야 할 것이다. 발굽질병이 있는 사슴을 계속 여러 마리의 숫사슴과 합사시키면 발굽질환이 악화되기 일쑤이고 다른 숫사슴의 공격 타겟이 되어 폐록이 될 수도 있다.

녹용채취 후 다시 자란 재생녹용은 철저히 제거해주어야만 다른 사슴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으나 평소 너무나 허약한 사슴은 재생녹용을 그대로 방치해줌으로써 이를 무기삼아 다른 사슴에게 다소라도 대항할 수



▲ 숫사슴은 번식계절이 되면 난폭해 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있어 체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식기 동안 숫사슴은 사료나 조사료를 잘 먹지 아니하고, 특히 조사료는 헤집어 헤치는 것이 통상인데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존재나 영토를 확보하려는 본능인 바 근 본적 방지대책은 없다. 다만 먹이통과 조사료통에 파이프 등을 대어줌으로써 사료나 조사료의 허비는 상당히 막을 수 있다.

번식철에는 투쟁시 몸싸움으로 인해 철망이 넘어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며 또한 파이프 조임쇠가 풀어져 안전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니 항상 관찰하고 여분의 철망이나 파이프도 준비해둬야 바람직하다. 번식기의 숫사슴의 관리상태는 관찰에 있음을 기억해두자.

③ 인공수정의 장단점

인공수정의 방법은 정액을 질소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냉동정액과 채취된 정액을 희석하여 냉장 보관하였다가 2~3일 이내에 사용하는, 소위 신선 정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덜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인공수정의 본래 목적으로는 냉동정액이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공수정의 장점은 첫째 소수의 우수사슴으로도 많은 수의 암사슴에 수정시킬 수 있고, 둘째 종자 개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셋째 분만시기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행함으로써 새끼사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넷째 인공수정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번식 부적합한 암사슴을 조기에 도태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수정기술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연수정보



다 수정율이 낮을 수 있고 노력과 비용이 집중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허물어지면 질병이 만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철저한 후대검정이 요구되며,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므로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육두수의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의 개인소견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려된다. 다만 개인소득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략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액공급은 문자 그대로 엄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진정 바라건대 인공수정사업은 양육인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만 한다.

④ 사슴의 조사료로서의 벼짚에 관하여

국내 양육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생산원가 절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사슴에게는 갈잎이나 상수리 잎을 먹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슴에게 갈잎이나 상수리 잎을 전혀 먹이지 아니해도 사슴의 건강이나 번식, 녹용생산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벼짚은 조사료로서 사용하되 녹용 절각시기에는 청초나 산야초를 급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벼짚을 주된 조사료로 채택함이 무방할 것이다. 필자는 만 2년 이상을 벼짚을 위주로 사육했으나 녹용생산량, 번식,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벼

짚의 영양성분에서 결핍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대두박을 소량 보충 급여해 주었고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의 결핍을 예방해 주기 위해 유한양행의 올믹스D를 사료량의 0.1%의 비율로 추가 급여해 주었다.

한국의 양육현실에 비추어볼때 조사료로서의 벼짚이 완전배제는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사슴의 조사료로서 벼짚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벼짚을 콤바인으로 자를 때 보통보다 약 3~4cm 더 높게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벼짚하단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유해성분이 많고 기호성도 불량하며 건초가 덜 되어 변질되거나 부패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단부위가 길게 논바닥에 남아 있어 짧게 자른 벼짚보다 건조상태가 양호해지며 기호성도 양호해진다. 다만 벼짚은 가능하면 비 맞지 아니한 것으로 조기 수확된 것이면 더욱더 좋다. 제대로 수확된 벼짚은 어느 건초에 뒤지지 않는다.

벼짚에 관한 위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소견임을 밝히면서 관련업계의 오해 없기를 바란다. 엘크에게 조사료로서 벼짚을 사용할 경우 약 400~500평의 논에서 생산된 양이 요구된다. 암모니아 처리된 벼짚은 사슴에게 급여전 약 2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암모니아 처리 벼짚의 즉석급여는 매우 위험하다. 암모니아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양육**

(필자 연락처 011-423-5297)